

◇Fontan수술의 합병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

심상석, 김용진, 이정렬, 노준량.

서울대학교병원

배경 및 목적 : _ 기능적 단심증에 대한 Fontan 술식은, 그 술식이나 잔존 형태학적이상 등으로 장기추적하는 과정에 심부전, 청색증, 부정맥, 혈전 및 판막 폐쇄부전 등의 합병증을 보인다. 이러한 경우 재수술로 술식을 교환하거나 잔존 병변을 교정하거나 부정맥 및 판막 폐쇄부전을 외과적 치료로 교정을 시도하여 보고되고있다.

방법 : _ 86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Fontan 수술후, 그 합병증으로 재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,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총13례의 환자에서, Fontan의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. 남자가 7례, 여자가 6례였으며, 나이는 평균 7.8 ± 5.6 [범위:19개월-18세]세였다.

결과 : _ 재수술은,초기에 Fontan failure로 Hemi-Fontan과 박동성 BCPC로 전환한 경우가 각각 1례, 천공 추가한 경우가 2례있었다.만기 합병증으로는,AV valve 폐쇄부전으로 기계판막으로 치환한 경우가 2례, 잔존 우-좌 단락이나 천공을 통한 단락량의 증가로 점차 저산소증이 심해져 단락을 일차 봉합한 경우가 2례, Fontan로 협착으로 Fontan로 확장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, 심방-폐동맥 문합 폰탄 수술후 저산소증과 부정맥 및 심부전 등으로 천공을 포함한 심방내 외측 통로 폰탄으로 전환한 경우가 2례, 부분 양심실교정술로 전환한 경우가 1례였다. 항부정맥의 치료로서 냉동박리를 시행한 경우가 4례, 영구 심박동기를 장치한 경우가 1례있었다.

결론 : _ 폰탄수술후 13례에서 심부전, 저산소증, 부정맥, 판막 폐쇄부전 등의 합병증을 경험하였으며, 이를 외과적으로 교정하여 증상완화및 호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책임저자:김용진(서울대학교병원) 발표자:심상석(서울대학교병원)